

대행 스님

공부하는 사람들은 옆눈을 팔지 마라!

몸뚱이에 대한 착 놓는다는 게…

질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생사에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는데 몸뚱이에 대한 착을 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우매한 중생에게 마음의 고삐 다잡을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그러실 때는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나도 아라한이니라. 서로 도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자체가 무생실참 도리로서 들어가면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겉으로 끄달리질 않고 이 몸이 지금 죽든 이따가 죽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마 다르다고 할 겁니다. 계율이 수백 가지라도 계율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사람이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굶는다, 먹는다, 입는다 이런 거, 누가 뭐란다, 누가 나쁘게 생각한다, 누가 욕을 한다 이런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던졌는데…. 이 몸을 던지느냐 이 몸을 안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 하나 던지지 못하니 욕심도 생기고 걸리기도 하고, 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망상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몸 하나 딱 버렸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봐도 좋은 게 없고 언짢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남이 웃으면 여여하게 웃고 남이 울면 여여하게 울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면 아주 여여할 겁니다. 편리하시구요. 내 몸을 살리려고 사린다면 모든 게 다 붙습니다. 일거일동 다 붙습니다. 하나 버리면 다 없는 것을, 하나를 중하게 생각을 하는 까닭에 전부 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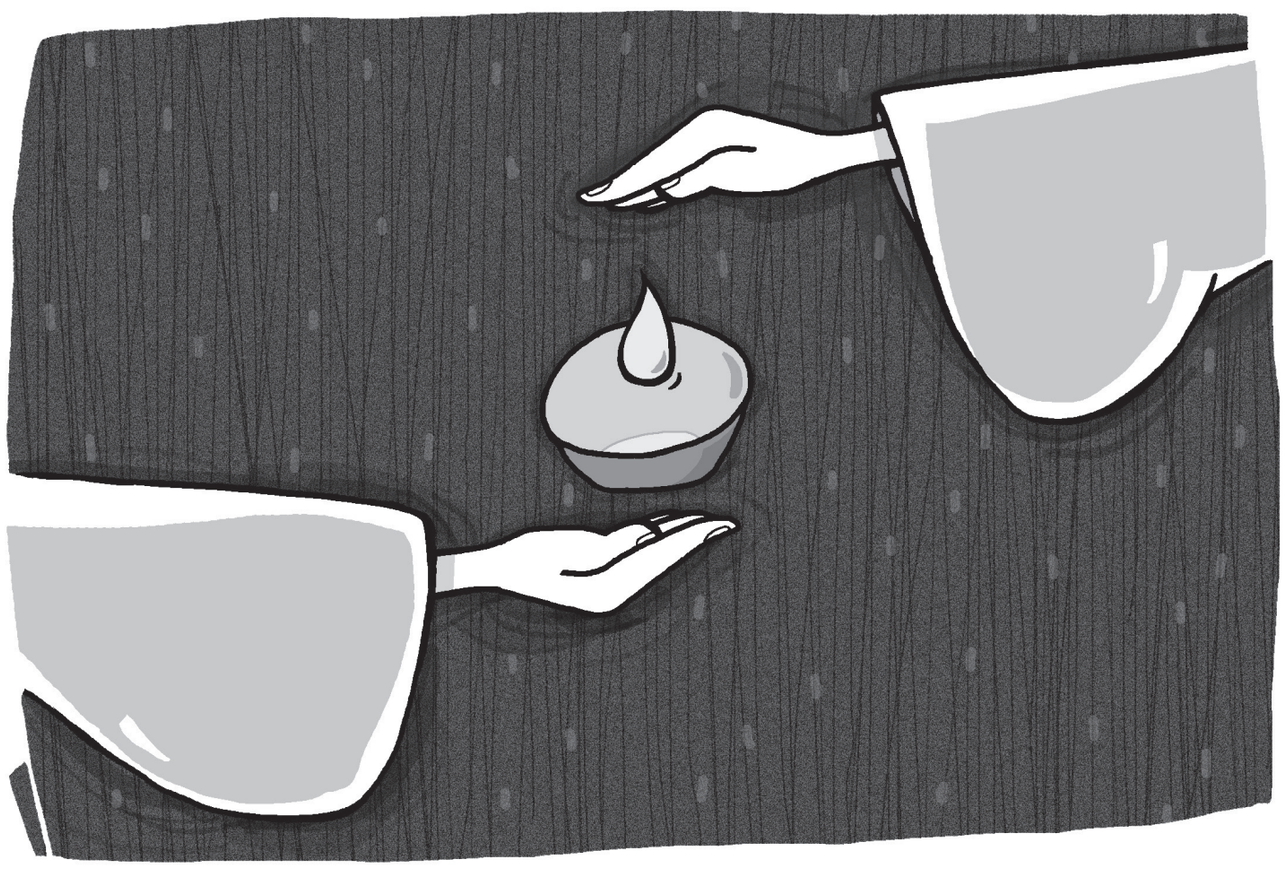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윤회와 재생에 대해

질문 죽으면 끊임없이 사람으로나 축생으로나 자기 살아온 업대로 재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벌써 이미 다시 옷을 바꿔 입고 어딘가에서 재생을 반복하셨을 텐데 이 후손들은 조상님들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슬하에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타파가 되도록 아들의 제사를 지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좋은 데로 태어나서 사는데, 꼭 어느 날짜만 되면은 꿈에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오는데, 그 집에는 하얗게 머리가 센 노파가 앉아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셨기에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너를 낳아 주신 전생에서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꿈에 갔던 길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찾아서, 몇 해를 두고 항상 다녔으니까 그 길을 잘 알죠, 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정말 그 노파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현생의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현생의 어머니와 함께 두 어머니를 섬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람답게.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그 밑으로도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은 집에 가서 태어났겠어요. 또 자기가 과거의 어머니로서 그 자식의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부모가 주신 이 모습을 아주 은혜롭게 항상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시면 제사 잘 지내느냐는 말도 하고 천도재는 지냈느냐, 얽히고설킨 거를 다 편안하게 활연하시게 했느냐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도님은 한쪽은 기독교를 믿고 한쪽은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식구는 한 사람이고 기독교 믿는 식구는 여러 사람이 되니까 우겨서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대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어디다가 몸을 의지하고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한 거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도님은 다른 종교를 믿는 형제들이 추도식을 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영혼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고 여기 다니는 막내 아드님한테 따라오셨더라고요, 거길 안 가고. 참 이거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형제들이 못 지내는 형편이면 지낼 수 있는 자식이 소박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내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골바가지들을 보고 정례를 올리신 겁니다. 내가 법문 중에 몇 번 얘기를 했죠? 공동묘지엘 가니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늙었더라고. 이런 걸 보면 아이도 조상이고 또 조상도 자기 자손이에요. 이런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왜 해골을 가지고 가르치셨을까요? 해골과 조상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례를 올리고 "이것이 전에 내 부모였느니라. 내 형제였느니라. 내 친구였느니라. 내 할머니였느니라. 내 할아버지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죽었으면 누구든 자기 조상 아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가 쳐서 거품 같은 물방울이 수만 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라앉으면 다 바닷물인 것입니다. 이 경우 물방울은 육신을 가진 중생이고 바다는 근본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물방울 하나가 가라앉는 것밖에 안 되는데, 누구라 가릴 것 없이 몸을 벗었다 하면 바다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땐 모두가 다 내 조상이다 이 소리죠. 일단 바닷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바닷물의 어느 것이 내 조상인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물 전체가 다 내 조상인 거죠.

생명의 근본은 그렇게 크고 넓으면서 하나예요. 그 생명의 바다에 잔잔한 물로 그대로 한자리하고 있다가 그냥 방편으로 작게도 크게도 나투면서 한 물방울이 되어 나와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니라. 바다를 봐라. 수만 개의 물방울이 흩어졌다가 바람이 자니 다시 가라앉아 지금은 그대로 다 바다이니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